

다양한 주체가 모여 학교 공간의 변화를 구상하다 :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양민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사업팀장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재생사업의 가치

학교는 근린주구의 핵심요소이자 마을의 중심이며,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학교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주민들은 학교 동문 또는 학부모이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된다.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 커지고, 이렇게 학교는 아이들과 마을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된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호 결과물인 ‘김영수도서관’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도서관’을 다양한 주체가 힘을 합쳐 ‘학교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고, 지역에 개방하여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낸 성과이자 ‘제주형 도시재생 협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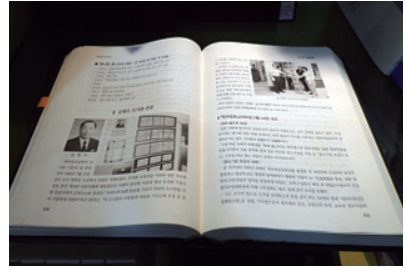
1907년 제주관립보통학교로 개교한 제주북초등학교는 제주 최초의 초등학교이자 한때 학생 수가 3,000여 명에 달하던 유서 깊은 학교이다. 그러나 원도심의 쇠퇴로 지역 인구 감소와 함께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고, 2018년에는 전체 학생 수가 203명으로 줄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이었다.

도시재생사업의 대상 공간인 제주북초등학교 학교도서관 ‘김영수도서관’은 학교 20회 동문인 故 김영수 씨가 1968년 어머니의 90회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 기증한 제주 최초의 학교도서관으로 학교와 지역에 있어 중요한 건물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제주북초등학교 100년사> 중 김영수도서관 내용

이런 김영수도서관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하여 마을도서관으로 지역에 개방하는 일은 기증자인 김영수 씨의 “모교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고,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말처럼 지역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기증자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였다. 학교가 ‘김영수 정신’을 지켜 마을에 도서관을 되돌려 주었고, 여기에 지역 건축가의 창의적인 설계와 행정·주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면서 이제껏 없던 ‘원도심만의 특색을 지닌 도서관’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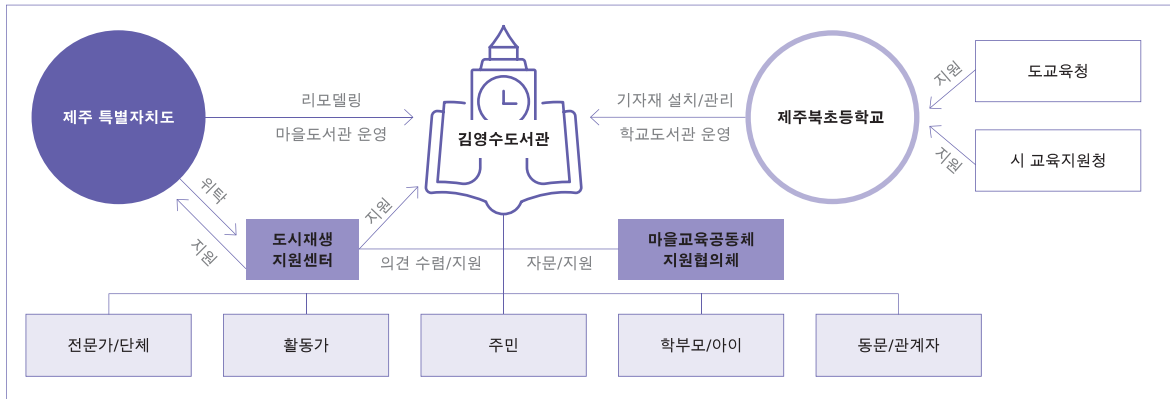
그렇게 김영수도서관은 학교를 넘어 마을이 함께하는 도서관이자 마을교육공동체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났다.

의견 수렴에서 참여까지, ‘김영수도서관 거버넌스’

제주시 원도심은 상업지역이다 보니 적정 부지의 확보부터 쉽지 않았고, 지역 대부분이 문화재 보존구역이었기 때문에 마을도서관을 신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사업 기획-설계·시공-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에서 행정·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지역주민과 지역 내 자생단체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조직하여 부지 확보와 사업의 방향 등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적정 부지의 확보 및 신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초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운영 체계

등학교 내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업대상지로 제안된 제주북초등학교 내 별관으로 있던 김영수도서관의 활용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학교·도교육청과 수차례 협의해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학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사업이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마을도서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사업의 이해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 학생, 더 나아가 학교 동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사업을 벌이기 위해 공간을 기획할 수 있는 건축가와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였다.

이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확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조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북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하였다.

학교 공간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기에 운영적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고, 학교와 함께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오후 5시까지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후 시간과 주말에는 마을에 개방기로 결정하였다.

마을도서관과 같은 공공건축물의 특성상 조성주체·이용주체·운영주체가 각각 다르고, 김영수도서관 사업의 경우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을 한 공간에서 같이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통한 의견수렴과 주민 참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수도서관의 기획·설계와 이용자 참여 디자인

‘김영수도서관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김영수도서관 외에 인근 유희공간인 옛 관사와 창고를 함께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되었다.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도서관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시설의 활용 및 인근 유희공간과의 기능적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기에 설계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였다.

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단계부터 지역의 건축가이자 제주북초등학교 학부모인 신진 건축가에게 기본구상을 의뢰하여 사전 기획단계를 강화하였고, 센터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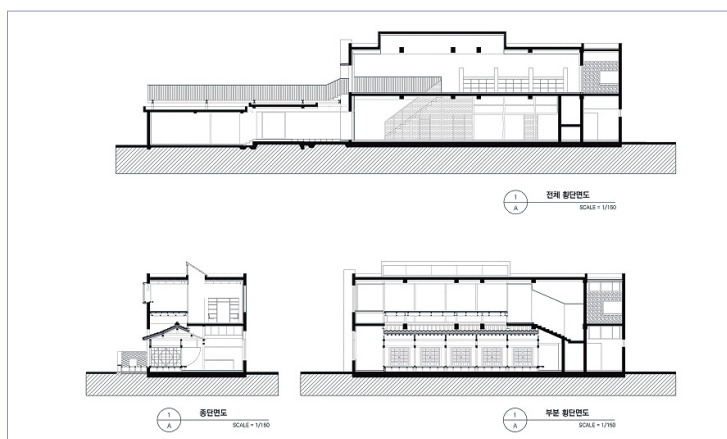
김영수도서관
초기 기획스케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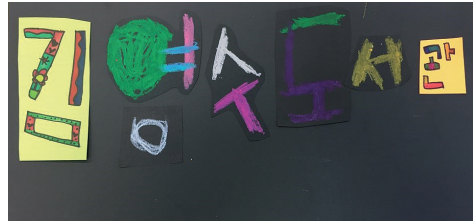
김영수도서관
설계도(단면도)

©틀라지에건축사사무소





6학년 미술수업(도서관 구상)



유치원 미술수업(김영수도서관 간판 손글씨)

을 구체화하기 위한 설명회·회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방지원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이용자인 학교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수업시간과 방과후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설계에 반영되어 도서관 내 공간이 조성되고 간판이 만들어졌다.

단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어 도서관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공모에 참여하여 약 3개월에 걸쳐 학부모 중심의 도서관 운영계획도 수립하였다.

또 도서관이 조성된 후 운영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전문가 등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을 위한 사전작업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전 과정 참여모델을 지향하였다.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학부모총회 설명회(상)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협의체(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노력

김영수도서관의 ‘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운영’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관행을 없애려 노력하였다.

시공 과정에서 도면 해석의 차이나 자재 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건축품질이 떨어지거나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자를 공사 총괄 감리자로 정해 공사 감리 시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학교시설에 대한 규정에 맞추기 위해 발주처와 학교·교육청·사업관계자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마련하였고,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급자재로 구현할 수 없는 부분은 계약부서와 협의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또 김영수도서관의 설계 콘셉트에 따라 내부에 한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참나무 고목을 구하려 설계자와 현장소장이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적합한 고자재를 확보하였고, 전통 목구조로 시공하기 위해 경복궁을 복원한 대목장을 직접 찾아가 섭외하는 등 계획·설계의 의도를 제대로 구현하고 관급공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김영수도서관 설계의도 구현 프로세스



©계주별별저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영수도서관 준공기념 제북페스티벌(좌)과 재개관식(우)

이와 함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학교 전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한 ‘김영수도서관 상량식’을 여는 등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도 신경을 썼다.

공간이 가진 힘, 학교도서관의 변화

김영수도서관은 인근에 사용하지 않던 옛 관사와 창고를 같이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365m²의 지상 2층 건물로 다시 태어났다. 김영수도서관의 가치와 기억을 지키기 위해 외관은 최대한 보존하였고,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원도심의 정체성과 학교 주변의 풍경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계주별별저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영수도서관 전경

그렇게 한복판에 작은 기와집이 들어앉은 독특한 구조의 도서관은 1층에는 한 평 남짓한 방 5개가 장지문을 두고 이어져 방 사이의 문을 열면 하나의 큰 방으로 합쳐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한옥방이 생겼고, 2층 열람실에는 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제주 목관아를 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파노라마 창이 설치되었다. 동굴 같은 화장실, 기와를 엮은 테라스, 계단서가와 밑의 비밀스러운 방 등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공간들도 만들어졌다. 옛 관사의 느낌을 살려서 만든 가족과 독서모임을 위한 사랑방, 그리고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돌봄 공간도 도서관과 연결되면서 커다란 하나의 집이 되었다.

김영수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을 기대케 한 공간이다. 우선 학교도서관이 갖게 되는 상식적인 모양새를 깨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학교·건축가·행정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협업체계를 만들어 갔다. 그리고 좋은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도서관을 통해 마을의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는 ‘아이를 키우며, 어른도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정책센터



테마 열람실 '한옥방'



계단서가 '층층다리'(상)와 열람실 '목관아가 보이는 책뜰'(하)

사업시행 전	 전 김영수도서관	 옛 관사(인쇄소)	 창고
사업시행 후	 현 김영수도서관	 아이쉼터(사랑방)	 아이들방(온기나눔방)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간을 만들고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일은 이상적인 협력 모델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을 딛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많은 기관과 단체 그리고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였다.

학교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개방하여 두 개의 운영체계로 운영되는 사례도 제주도 아니, 전국에서 최초의 일이다. 이제 김영수도서관은 평일 오후 5시까지의 학교도서관으로, 평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마을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개의 운영체계가 하나의 공간에서 운영되기에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서로 다른 두 기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김영수도서관이 마을에 개방되면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도 함께 변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가 그림책 읽어주기(상)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하)



6학년 한지창호 보수 수업

김영수도서관처럼 지역 단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는 공공시설은 커뮤니티의 거점이자 지역재생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규모 공공건축물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기존의 정책 또는 사업과 차별화되는 전환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에, 김영수도서관은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중심의 운영모델’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최소한의 운영보조와 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운영해 나아감으로써 도서관을 이용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봉사하는 가치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만드는 곳이 되고 있다.

앞으로 김영수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원도심의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